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전반기 교구영성훈련

복음 안에서 누리는 부흥과 친교 · 2개 교구별로 연합하여 진행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매년 봄 · 가을로 진행되는 교구영성훈련이 다시 시작된다. 봄을 맞아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교구식구들의 영혼도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영성훈련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금번 2000년도 전반기 교구영성훈련은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충현교회에서 진행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찾아 복음 안에서 부흥을 이루고 친교를 도모하는 교구영성훈련은 금번부터는 2개 교구씩 연합하여 오픈편의 일정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며 예마다 교구간 친교와 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모임을 계기로 하여 교구와 교구 간의 연합으로 진행되는 친밀한 행사가 계속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영성훈련의 내용은 예배와 묵상, 식탁의 교제와 친교, 교구 지도교역자의 강의를 통한 대화, 기도원 주변 환경정리 등으로 구성된다.

날짜	요일	교구
4월6일	토	1, 10
4월14일	토	2, 11
4월20일	토	3, 12
4월27일	토	4, 13
5월4일	토	5, 14
5월9일	화	6, 15
5월18일	토	7, 16
5월25일	토	8, 17
6월1일	토	9, 19

그 땅의 젊은이도 천국일꾼으로 수단 현지인 사역자 지원키로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모슬렘 권력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수단.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에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내사가 바로 오늘날 수단인들의 선조다. 당시의 에디오피아가 바로 오늘날 수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 있는 박물관에는 수단이 한때 기독교 국가였다는 증거들이 즐비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프리카 복음화의 전초기지로서 사용되도록 지금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교회는 얼마 전 북부수단 출신인 모하메드 살라 로마단을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으로 유학보내 수단 복음화를 위한 일꾼으로 키우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토마스 두두, 존 손, 솔, 아브라함, 스티븐, 존 위얌, 데이빗 뎡 등 6명의 젊은 일꾼들이 수단 복음화에 앞장설 일꾼들로 지속적으로 자라나도록 지원키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여 운영되는 유스 하우스(Youth House: 정은희 선교사 담당)에서 기숙하면서 말씀훈련을 받고 있으며, 현지 교회 등에서 주도적인 일꾼들로 섬기고 있다. 한 땅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계속적인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충현의 의료인 선교의 밤 의료 · 복음 · 교제 · 선교

충현의 모든 의료인들 참여 기대
3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신교위원회 의료신교부(부장 이종석 장로)에서 주관하는 충현 의료인 선교의 밤이 3월 28일(화) 저녁 7시에 갈밀홀에서 열린다. 의료신교부는 이 날 충현에 속한 모든 의료인들(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관련 기능인들 및 의과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등)이 동참하여 친교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충현의료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관하여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7시부터는 식사를 통한 교제, 8시부터는 기도회 및 의료활동을 통한 선교전략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 · 초 · 소년부 찬양대원 특강 3월 25일(토) 3시 교육관 314호

제1교육위원회에서는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소년부 찬양대원들을 아담하게 준비된 찬양대원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찬양대원들을 대상으로 3월 25일(토) 오후 3시 교육관 314호에서 찬양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예배와 찬양의 중요성' (4시-4시, 강사: 조문환 목사), '찬양대원의 기본 자세 및 발전연습' (4시-5시, 강사: 장임구 찬양감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2000년도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늘 중 각 부서 예배시 부서별로

도서장학의 사정상 일주일 연기된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각 해당부서별로 부서예배시에 진행된다.

충현동산 "벚꽃으로 단장합니다" 3월 25일(토)

충현동산이 3월 25일(토) 벚꽃으로 단장한다. 안수집 사역의 후원으로 6년생 왕벚꽃나무 160그루를 식수하게 된 것이다. 이매다로 앞으로 성도들은 봄날마다 충현동산에서 잘 가꾸진 조경을 통해 천국소망의 기쁨을 한층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겠다. 한편, 4월 중에는 천사회의 후원으로 충현기도원에 벚꽃나무가 식수될 예정이다.

제1회 주간충현 신앙수기 공모

주간충현에서는 2000년도를 맞아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신앙수기 공모합니다. 큰 주제는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1)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되었기에 대하여 쓰셔도 좋고 2)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올라가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쓰셔도 좋습니다.

21세기에도 우리들의 삶의 주제는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번 신앙수기 공모를 통해 충현의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마다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통해 축복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 주제: 큰 주제- 찾아오신 예수님
작은 주제
1)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
2)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 찾기
* 글의 제목은 임의대로 붙여셔도 됩니다
- 기간: 2000년 4월 2일까지
- 분량: 원고지 10-15매 이내 A4종지 1-2매
- 대상: 충현의 성도 누구나
- 시상: 1, 2, 3등 및 수 편의 작가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 보낼 곳: 주간충현 편집실(신교관 303호)
사무국 총무과(교육관 1층)
- 심사결과: 4월 23일자 주간충현에 발표합니다
- 저재한 문헌의 구내전환 348번 주간충현 편집실로 하시면 됩니다.

신교기도회

"선교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3월 21일(화) 6시부터 만나를 · 7시부터 갈밀홀

3월 21일(화) 갈밀홀에서는 신교기도회가 열린다. 신교위원의 실행위원 및 단기신교 참가자들, LMTC 훈련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교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이번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를 통해 교회를 향신 하나님의 뜻이 아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동참이 기대된다. 6시부터는 만나홀에서 식사가 제공되며 기도회는 7시부터 갈밀홀에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 상반기 정기감사 실시

- 대상기간: 19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1월분 시산표
- 대상기관: 각 위원회내 산하 전 부서 및 부속기관
(남녀 각 전도의 제외)
- 감사실시기간: 2월 ~ 3월 중
- 감사실시장소: 신교관 404호

알려드립니다

2000년도 교회요람에서 관찰명단이 누락되어
부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교구별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서노노회 제57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목사고시신청(경도사무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감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③ 전도사 고시 청원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충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⑤ 신학 계속 추천 청원(충신대학 및 충신신대학 재학생)
- 제출기간: 2000년 3월 21일(화)까지
- 접수 및 문의: 교회 사무국 총무과(☎ 563-2339)

AMAZING THING

(Matthew 8:1-4)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immediately he was cured of his leprosy.

When Jesus began His ministry, He went throughout all Galilee teaching in the Jewish synagogues and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kind of disease and every kind of sickness among the people. This was an amazing thing! Under Jewish law, only good people or clean people were allowed to enter into the Temple or synagogues to hear the high priests or scribes preach, not unclean people—especially not lepers. The news about Him quickly spread throughout all Syria; and they brought to Him all who were ill, those suffering with various diseases and pains, demoniacs, epileptics, paralytics; and He healed them. Large crowds followed Him from Galilee and the Decapolis (a district, originally containing 10 cities, south of the Sea of Galilee, mainly to the east of the Jordan River) and Jerusalem and Judea and from beyond the Jordan (see Mt. 4:23-25). Unlike the high priests and scribes limited audience, Jesus attracted everybody! Seeing the crowds, He went up on the mountain and preached the now widely known and loved Sermon on the Mount (see Mt. 5-7). When He had finished, the crowds were amazed at His teaching; for He was teaching them as one having authority, and not as their scribes (see Mt. 7:28-29). The scribes had to rely on tradition for authority; Jesus' authority was His own. Indeed, His ministry contrasted the new Way with the "old one" of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Today's Scripture passage comes after Jesus' long sermon—the Sermon on the Mount. Just how long it took for Him to deliver it is unknown, perhaps hours. Never the less, the people weren't bored or tired. Quite the contrary, "When Jesu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large crowds followed Him" (v. 1). His preaching was different. He was different. Many heard His words and took them to heart! One such person was a very sick man, "And a leper came to Him and bowed down before Him, and said,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v. 2). What an amazing thing! In the Jewish religion the high priests judged whether or not

someone had leprosy in order to cast them out of God's family; they never healed them (see Lev. 14). Here, a leper comes to Jesus, bows down before Him, and requests healing. He calls out "Lord" because He believes. He believes because He heard the

before Jesus and asked of Him and received of Him? So many blessings flow from the Father through Jesus to you. Do you ever think of the amazing thing He did for you? If I invested \$200.00 in some new mutual fund and made \$2,000,000.00 in a relatively

way to salvation. His blood provided the forgiveness of all sin!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Is there anyone who doesn't understand the word "no one"? It means no person. Nobody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without Jesus. To know God is to know Jesus. Without Jesus, no person has any connection with God. Only Jesus provides the truth, way, and life of God.

Jesus said to the leper, "See that you tell no 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present the offering tha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to them" (v. 4). Just imagine the stunning impact on the priest, since no record exists of any Israelite being cured of leprosy except Miriam (remember Naaman was a Gentile). What a testimony! What an amazing thing! Where the Law ended with a leper being cast away, Jesus finished with a leper being brought into God's family. This leper is now an Israelite. He's now God's child! He is clean and free, filled with joy and the hope of eternal life.

How many times have you gone to Jesus, asked Him to cleanse you, with the desire to be God's child? how many times has Jesus responded, "I am willing, be clean"? Did you ever testify to this? Do you truly appreciate His sacrifice and blessing? Let's stop here. When we come to the Lord, we pray in part,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God always gives an answer. Do you appreciate His awesome response? Are you proud to be a child of God? This is a blessing, an amazing thing! How excited are you? Do you believe that if you come to the Lord and ask Him to please forgive you that He will, and in so doing make you God's child? So often our minds wander to other things and we don't ponder the incredible and amazing gift of His grace. This sermon about the man with leprosy gives us tremendous spiritual power. This Word of God teaches us that between leprosy and communion with God there is the proclamation of heaven! Jesus asks us to witness to this truth. Let us join our hearts and pray, "Lord, if you are willing, cleanse me". Amen!

*Wake-up! God's grace that comes to you in
Christ Jesus is the most amazing thing ever!*

*This life is filled with amazing things,
like the birth of a child, airplanes and computers,
the special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etc.,
but none so utterly amazing
and all important as to be cleansed from sin.*

Word of God. He heard the Word of God because of Jesus. Amen!

Jesus didn't push the leper away. He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I am willing; be cleansed.' And immediately his leprosy was cleansed" (v. 3). Isn't this amazing? If this leper had come to any other priest, the priest would have cried out, "Unclean, unclean" and asked that the sick man immediately depart. Jesus touched him and brought him into God's family. He touched him in the same way. He now touches you and me. I can't think of better way to describe the affects of Jesus' touch than to call upon the hymn which so beautifully rings with this truth, "Shackled by a heavy burden, beneath a load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the same—He touched me—Oh, He touched me—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My dear Choong Hyun friends, right now, as we stand before the Lord God, do you realize that Jesus shed His blood for you so that you could have the opportunity to be reconciled with God? Let's be honest. How many times have you, like the leper, stood

short time, everyone would look at this occurrence as an amazing thing. How many here today think that when they ask the Lord, "I'm a sinner, please cleanse me," and they become an Israelite—a special child of God, that this is indeed an amazing thing? Wake-up! God's grace that comes to you in Christ Jesus is the most amazing thing ever! This life is filled with amazing things, like the birth of a child, airplanes and computers, the special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etc., but none so utterly amazing and all important as to be cleansed from sin.

Throughout the entire Old Testament, there's only two occurrences of someone actually being healed from leprosy—Miriam (see Num. 12:10-15) and Naaman (see 2ki. 5). Everyone else suffered. God made Moses' Law for our benefit, to point out the serious consequences of sin and the need for redemption. There wasn't one Old Testament saint who lived up to the Law of God. No one could but God Himself. The Son of God came to this earth not only to uphold the Law but to finish it—to make it so that you and I through His grace could live in harmony with God. Jesus' death on the cross opened the



김성관 목사

놀라운 일

(마8:1-4)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몰락드는 사람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 아래서는 오직 훌륭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문둥병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온 유리아에 신속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병자들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귀신들린 자, 간질병자, 종풍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와 데카볼리(갈릴리 남부에 10개 도시를 가진 요단강 동부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서 편으로부터 몰려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 4:23-25). 제한된 청중들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따랐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치는 군중을 보시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산상설교’를 증거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서기관들의 것과는 달리 권위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마7:28-29).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전통에 호소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설교 예수님의 사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옛 것’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진리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며 저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끝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전혀 지루해 하거나 피곤해 하지 않았습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에 비추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1절).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며 저를 깨끗케 하시옵나이까”(마8:2).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문둥병이 있는 자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었고 그것도 백성공동체에서 축출하

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레14장). 그러나 여기에 있는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아마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찾아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만져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마8:3).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이 문둥병자가 어떤 다른 제사장에게 갔더라면 제사장은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를 당장에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아름다운 천중으로 밖에는 달리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 세상길 나의 말이 곤한 때 사방스런 주의 손길 오나의 맘을 두드려내 주 불드네 오 날 불드네 내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네 내 날 언제나 불드네”

가장 놀라운 일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뿌려 우리를 위하여 화복케 하신 은총을 누릴 기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지십시오. 우리는 몇번이나 이 문둥병자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를 믿는 말로 기도했습니까? 수많은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에 제가 류유언 펀드(상호기금)에 20만원을 투자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만에 그것을 20억원으로 불렀다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라며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깨끗케 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는 사건이아마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아마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자녀의 탄생과 비행기와 컴퓨터,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사랑 등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중요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가 없는 아무도

구약 전체를 통해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일은 단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미리알의 일(민12:10-15)이고 다른 한 번은 나아만의 일(왕하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한 결과와 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전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여 생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확충하신 뿐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 살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피가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아무도’라는 말을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변화된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마8:4).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 사람 중 미리알을 제외하고는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 없었습니다(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율법은 문둥병자를 쫓아내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심으로 그에 대한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는 깨끗해졌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기쁨과 영광의 소망만이 그에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열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깨끗케 하여 달라고 부탁드리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신 적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러한 제해를 간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회개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 하나님은 항상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응답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자랑스로우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아마로 진정한 복복이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 얼마나 흥분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사하심을 구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기웃거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을 위해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문둥병과 하나님과의 교통 사이에서 하늘의 은총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던 것을 깨끗케 하시옵나이다”. 아멘!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 미 니 (외선부 스리랑카에 통역자)

외선부에는 각 나라별로 팀이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스리랑카팀은 비교적 많은 수의 친구들이 나오다가 얼마 전부터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선생님들과 남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마지막 주일 목사님으로부터 2월 27일을 스리랑카의 날로 하시겠다는 광고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저희 스리랑카팀은 기쁨으로 연극, 찬양, 율동, 스리랑카 음식 등을 준비했고, 그 과정을 통해 평소 애지 미지 알지 못했던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또 그동안 선생님들의 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던 친구들이 "스리랑카의 날"을 맞아 많은 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충현교회와 통해 스리랑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삼방하며 전도하기에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감사하였습니다.

드디어 2월 27일, "The Day of Sri Lanka"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복음을 듣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였고 내 자신의 눈에는 어느덧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연신 나왔고 다른 7개국형제, 자매들의 찬양 소리에 어우러져 내 기도하 하나님께 메아리쳐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느 한 나라의 날을 정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은 충현교회에 내 번째 목포인 "세계 선교"를 알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해 주신 김성환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외선부를 위해서 기도의 곁방에서 잠잠히 기도해 주신 권사님, 기도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와 있는 우리 형제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에 있던 부흥이 스리랑카에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3월 19일(주일)에 있을 "몽골의 날"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단 반기독교 선교사 소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것 수단은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편지를 보내려고 여러번 계획했지만 전기가 나가지 않아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 지면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한낮에 40도 가까이 되는 데다가 계속되다가 일찍부터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도 무척 많이 불습니. 어떤 선교사님은 꽃샘 추위가 낀다고 하시지요. 지난 주에는 '신자'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자'는 여기서 차로 6시간 정도 가는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었던 메라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포성된 도로이고 버스도 제법 좋은 것이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카르푸타다 시원하고 듣고 갔었는데 기도와는 달리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리고 오기도 얼마나 많은지 밤엔 모기와 사슴하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신자에 있는 교회는 교인도 적고 환경은 열악하였으나 자신이 세례전 생활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제에는 병원에서 있는 형제인 가르비엘 소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메라와 지역에서 처음으로 파송되어 아주 많은 사역을 감당하던 유능한 일꾼이었는데 작년부터 병을 앓기 시작해서 여러 형제들이 생겨 가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최근에 그의 병세가 호전되어 지말을 잡고 목숨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들의 기도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곳에서 저와도 동역하는 형제인지는 있습니다. 특히 우스 후무스에 있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모르나. 지난주에 너무나 사소한 것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또 표현방법이 달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결코 결함없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수단에 온전히 헌신되어 아직 지리나 언어가 부족하면 초고속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간단한 단어와 숫자정도만 미리 익혀두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17개국을 두배 이상을 부르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차를 타기 전에 정보를 얻어 적당할 가격으로 흥정하기 위해 숫자는 미리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너무나 신기한 것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처음엔 그것이 너무 무당스럽고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리가 안되고 적응이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와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여 사랑과 선물을 드리십시다. 글이되어 이 수단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미다미 찬양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2000. 3 월연일 박수진·추은희

제외 충현 의료인 선교의 밤 우리를 선교의 기동타격대로 써 주소서



오는 28일(화) 저녁 7시에는 칼빈홀에서 '충현 의료인 선교의 밤'이 열린다. 선교위원의 선교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마도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인들의 모인자리 행사에 대하여 기대하는 의료인들과 선교관련 성도들이 많은 것 같다. 사실,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관련자들을 찾아보면 최소한 100명 정도는 넘는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의료를 통한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10명밖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인들의 직업상 시간을 자유롭게 내기가 쉽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충

현의 모든 의료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금민 행사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의료선교부는 매월 세계주 오전 1시에 선교위원회의실에서 기도회도 모이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을 이용하여 몽골, 파키스탄, 수단, 케냐 등으로 의도단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의료인들은 선교지에서 평생에 한번의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현지인들에 의술이 발휘하는 영향력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오니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의료인들을 통해 많은 선교사들은 큰 행을 얻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선교선교사역을 다룬은 아주집사는 "모든 의료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료인들로 만들어 주신 계획을 잊지말고 단기선교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당부한다. 이번 행사는 많은 학생들과 의료 관련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의료선교부가 '의료선교'로 나아가는 큰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집 기자)

12교구 여전도의 병원전도 "이제 가라 내가 가르치리라"

이순자 (집사, 12교구 루터아전도회)



나 한때 불타는 사랑감으로 호스피스로 일했다. 주로 말기 암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으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같이 생각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은 나의 큰 보람이고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때로는 상처를 치료하고 주사를 주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 또한 느끼며 부끄러운 죄인을 주님의 작은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렸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골4:13).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로는 가정에서 또는 병실에서 육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몸부림치는 환자에게 강한 진통제를

투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환자의 회개와 눈물은 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고, 그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간담에 걸린 50대 남자가 있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는 죽음에 대한 고통과 분노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지속적으로 방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고 하고 일종의 자살이었다. 그 날 이후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생각에 호스피스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여전도회에서 하고 있는 병원전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전도부장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할게" (출 4:12) 라고 말씀하셨다.

12교구 여전도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병원전도를 하고 있다. 매우 화요인데 두 사람이 한몸을 이루 따뜻한 미소와 간절한 기도으로 환자에게 정신적으로 평안함을 주고 육체적 고통을 이기게 한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위로는 환자를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에게도 참 신앙을 깨닫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신경을 입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고통을 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다가가야 할 것이다.

함께 생각하는 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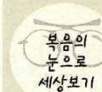
사역자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불도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바쁘게 부딪히는 고통은 기억에 의한 고통, 치유를 필요로 하는 상처입은 고통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상처입은 고통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아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 이미 아주 은밀한 영역에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잊혀진 기억들을 끄집어 내심으로써 우리의 고통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고통들을 자신이 짊어지셔서 세상에 바꾸신 고통과 연결하십니다. 그러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더 큰 고통의 일부본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비 중 하나는 가끔은 우리가 마주 대할 때보다 서로를 기억할 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멀리 멀어져 서로 보지 않고 있을 때 기억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억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행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요 16:7, 13). 따라서 우리는 떠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불도심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원혼 속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부재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사역자는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서 그곳된 환상(믿음)의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벗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탁월한 설교가들이자
유능한 상담자이며
훌륭한 행정가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방황성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고 기도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탁월한 설교가들이자 유능한 상담자이며 훌륭한 행정가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방황성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기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의 단락함이라는 거짓된 망상을 벗기내고 사람들에게 본래의 비전을 기

여나게 할 때 진정한 안내자가 됩니다. 나의 말씀을 끊임없이 목상하는 일을 통해 이 비전이 우리의 삶과 끼어듭니다.
(-헨리 나우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두란노-중역서)



대학생 14% 알코올 중독 (매일경제 2000년 3월 4일자)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학생 10명중 남자 9명, 여자 8명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3일 발표하였다. 이는 성인 10명중 남자 8명, 여자 5명이 술을 마시는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98년 1년간 대학생 505명의 음주실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술을 끊기 힘든 알콜중독 상태가 14%, 건강상 이유로 금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전체의 36%에 달해 음주가 대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었다.

초고속 정보통신의 지구촌에 사는 젊은이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술마실 시간조차 없을 것 같은데... 술로 풀어야 할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또는 음주에서 오는 쾌락에 탐닉하는 것인가?

기독교청년들은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회밖에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일거수 일투족을 주께서 바라보신다는 관점이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염은 기묘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주일성수하는 청년들 중에도 술과식에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그들과 함께 즐기는 지체들이 꽤나 있다고 듣게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스도인도, 더욱이 기독교 청년에게는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은 친구들과 여전히 잘 어울려야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감화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한층 더 부담스러워지고 모른다.

술에 의지하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화하여 여가 그들 내면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필요에 대한 귀한 조언과 도움을 가까이 배워야 한다. 교회생활을 잘하는 건강한 청년들이 교회안에서 교제도 중요하지만 '너희도 이같이 빛을 사람에게에 비취게 하여 너희의 나그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는 말씀대로 행할 때 실로 아름답지 않을까? (김성익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정옥순·노점례·한은숙' 자매를 소개합니다



▲ 사진 왼쪽부터 정옥순·노점례·한은숙 자매

정옥순 자매는 교회에 다니고 싶었는데 충현교회가 너무 크고 웅장하여 위화감이 먼저 들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믿는 친구가 있었으나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는 너무 멀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 친구도 적극적으로 않고, 아무도 교회에 나오라고 단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은 처녀시절에 알고 지내던 동생이 충현교회에 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그 동생을 찾아 충현교회에 인도해줄 것을 부탁하여 등록하고 새가족부에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결집입니다.

노점례 자매는 처녀시절에 5년간 교회에 다니고 은혜 중에 체험도 있었으나 결혼하고 아이낳고 이저하다 신앙생활과 멀어졌답니다. 늘 마음속으로 교회에 다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다니던 교회를 다시 갈까 생각중이었는데 정옥순 자매의 권유로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은숙 자매는 정옥순, 노점례 자매와 같은 동네, 같은 골목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중에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주 출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수줍게 말하는 자매를 두분 자매가 옆에서 거들며 어질것에 주일학교에 다닌적이 있다고 우연히 교회에 오게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좋은 동네 친구분을 만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분이 서로 도와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하면 너희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이 말씀은 한 가족중 아내 한 사람만 믿으면 그 덕분에 남편은 자녀도 다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른 것 같이, 구원도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새가족부에서 6개월을 철저한 공부를 하고 수료했습니다. 수료할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같은 반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가 수료할 때쯤 군대있던 아들이 재대하면서 새가족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사위될 사람도 함께 왔습니다. 작은아들과 그의 애인이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그 한가족이 모두 구원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례입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이자 박사인 분이 정모의 권유로 억지로 정말 억지로 새가족부에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채 말만 내려다 보고 만만한 파우더만 차출 머리를 돌리다 는 지리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면담이 없었는데 시일이 가면 시점점 일찍 나와 앉자리에 앉더니 얼마후에는 친구분과 같이 와서 6개월동안 공부하는데 개근상을 보았습니다. 그거 수료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까지 빠지고 교수지만 자신이 강의할 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를 해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인 줄 예전에 정말 몰랐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요, 여기는 박사도 오고, 교수도 오고, 교수에서 나온 학자도 오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도 오시고, 젊은이도 오고, 말을 못보는 시각장애인 여러분도 접자를 찍어 가면서 공부하여 수료합니다. 정말 아무나 오라는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열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점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만 오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하셔서 함께 하나님 백성되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명선 은퇴전도사)

내 입의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유 명 숙(10교구)



세상살이에서 인생이 피곤할 때 찬송 부를 힘도 빠지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때론 생각지도 못한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다. 꿈결에 찬송이 들려서 잠을 깰 때도 있다. 우리 영혼을 씻어 주는 찬송시를 주께서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나는 기도시간에 찬송부보다 기도하다가 또 찬송부하기를 좋아한다. 더 영혼이 더욱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주님과 영적 주파수가 더욱 일치하는 것처럼 느낄 때 성령께서 꼭 생각나게 하시는 찬송이 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피땀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생각해 보면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무서운 고백이다. 그런데 어찌하고 이 찬송이 내게 떠오르는 것일까?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또 넘어질지라도 이 찬송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아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찬송가 360장 1절에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4절에서 나와 함께 가신다고 고백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나타나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마 16:24)이라는 말씀은 이 찬송시를 낳게 한 귀중한 말씀이다. 주께서 그 말씀을하신 까닭은 주를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않은 길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주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을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결국은 주의 힘으로 지켜지고 주 안에서 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내포되어 있다.

일에서

일에서 자유하고 싶다

"나를 내려 놓으니 이토록 평안한 것은..."

강 여 경(중동2부 교사)



더더 한 권의 책이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나의 책이 되고 싶은 화가 박순경(가)이란 제목의 어린이용 책이다. 지난 해, 나무숲에 이란 조그만 출판사를 만들어 얼마 전에 첫출간을 보인 책이다.

하루에도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책들 가운데 한 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이 책에 나의 모든 걸 바치며 살았으니, 출판 편집일에 종사해 온 지 여덟 년째, 일반을 나의 전부가 되며 살아온 그간의 시간들이었다. 새 해 전, 뒤늦게 주님을 만나 그를 알아가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과 '내 일'을 별개로 여기며 살아왔다. 다시 말해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으로 각각 내 삶의 한 영역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내게 지난 한 해는 그저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 생자의 전이를 가져온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에 쓰여지 하나님을 더하는 그런 책은 만들지 못하는 생각으로 새 책 기획에 돌입했다. 새벽 예배에서 주님을 만난 뒤 바로 사무실로 출근해 성경 읽고 묵상한 뒤 일과를 시작하였다. 주중엔 일에 매달려 살고, 주일엔 교회 봉사와 성경 공부 등으로 주님께 매달려 살았다. 스물네 시간이 모자라게 바빠 지내면서도 새벽 예배에 빠짐없이 나서는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다. 그러나 새로 이 직책을 맡았어 푸리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않은 않았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한 톨들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해결하리라 했던 일들도 제대로 되기가 힘들었다.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능력의 한계를 숨하게 느껴야 했다. 그러면 서로 나는 내 일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뢴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이렇게 일로 꽂혀 있던 나의 뇌리에 '나는 왜 이토록 일에 매달리는가? 난 어떤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진정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일까? 혼란스러웠다. 오랜 동안 마음의 갈등을 겪으니 일마저 더욱 뒤죽박죽인 채였

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간의 시련이 나를 혼란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선행히 느낄 수 있었다. 한 순간에 주님은 나를 놀라게 되게 하셨다. 그의 영광 속에 내 기쁨을 누릴게 깨달은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기까지 참으로 긴 혼돈의 시간이 필요했고, 주님은 이토록 부족한 내가 다듬어 주신 것였다. 아둔한 나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생각의 전환을 맞자 꼬이거만 하던

사랑부 찬양대의 자랑

손 소 영
(사랑부 지휘)



"사랑부하기 힘들지? 애 쓴다." 사랑부 찬양대 지휘하다 하면 누구에게나 들는 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뇨, 재미있어요." 찬양을 재미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나는 찬양대하는 것이 즐겁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원이 잘하기 때문이다.

자랑 하나. 우리 사랑부 찬양대원들은 찬송가를 외워 찬양한다. 찬양대원은 현재 20명이고 연습시간은 예배전 15분, 예배후 15분, 총 30분으로 이 시간에 찬송가를 외운다. 그냥 가사만 외우는 게 아니다. 절기에 맞춰 찬송을 선택하고 가사를 풀이 설명된 뒤 몇 번 같이 하면, 유아부와 초등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외우게 된다. 가사는 한 주만 대충 외우게 되지만, 넉 주 동안 연습하게 확실한 외우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외운 찬송가 30여곡이고, 그중 네절까지 외우는 찬송이 9곡이며, 나머지 곡도 한절씩 대 외워가고 있다.

자랑 두음. 우리 사랑부 찬양대원들은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시간을 잘 지키는 예배전 연습시간에 늦으면 찬양대에 설 수 없다. 처음 열마동단 늦게 와서도 세워달라고 하면서 담임선생님까지 모셔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찌나 늦는 날이면 조그맣게 자기 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후 연습시간에 찬양대적으로 와서 너무나 미안해하는 얼굴로 '선생님 늦어서 미안해

요. 다음주에는 일찍 올게요."라는 인사도 잊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우리 중후 예배시간에 늦어도 스스로 핑계를 찾아 미안한 마음을 감출 적은 없는지, 또 인제는 찬송가를 외면 부를 수 있기에 성의없이 찬송한 적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시간에 늦지 않고, 찬양할 때는 가사를 깊이 음미하며 부르시지만 말이다. 다시 우리 찬양대 예기로 돌아가서 자랑을 늘어 놓기로 하자. **자랑 셋.** 우리 찬양대원들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는 글을 읽는 친구, 못 읽는 친구,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음정을 잘 안나오는 친구, 입의 근육이 굳어 움직이기 어려운 친구 등 다양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음정이 정확하지 않고 어느 한 대원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등 음악적인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마음으로 외워 부르는 찬양은 정말 아름답다. 한가지 설도 어려운데 부락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열심히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을 정복이라고 쉽게 부르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찬양 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들이 놀라움에도 자연스레 풀려나 있다.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순순히 내어놓을 수 있었다. 나를 내려 놓으니 이토록 평안한 것을 그토록 바동거린 이전의 내가 가늠할 지경이었다. 결코 주님께 누를 끼치지 안되리라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하여 드디어 지난 달 첫 책을 마무리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실이었다. 새벽 예배에서 주님께 첫 책을 바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다.

다행스럽게도 오랜 매체와 여러 기관에서 의미있는 펴를 해주어 요즘은 우리 사무실을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단 순히 보여진 책 한 권의 탄생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와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시간이었다.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면서 나의 일이 한날 주님의 도구일 뿐임을 뒤늦게 안 것이다.

이제는 이 허름한 나의 일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있다. 생각만이 아닌,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 나를 열어서 지켜 준 목사님과 아침마다 함께 성경을 읽으며 아침밥을 기쁘게 대접해 준 자매와 주일에 꾸민 차를 조곤 성경 공부와 도와 준 사제들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결론과 운운함으로 내게 말거진 인터뷰에서 더욱 열심을 다하려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임을 되새기며, 진정으로 일에서 자유하고 있다.

지체들 소식

유아부

성령이 풍부한 교육이 되도록

유아부는 지난 12일 학부모 좌담회를 가졌습니
다. 유대인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있는데 그들의 교육이 어려서부터 전적으로 말씀
에 준한 훈련이어서 가능했다는 전도사들의 말씀
으로 시작해서 유아부 교육이 어린이들의 일생에
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며 세상지식이 아닌 성령과
감동으로 충만한 교육이 되도록 애쓰자는 장로님
의 말씀에 모두들 공감했지요. 또 아기때부터 매
일 아침 전적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어주었더
나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을 외우더라는 어머니, 덕
소에서 아침6시반 길을 나서 저녁 예배까지 온전
하게 주일을 지킨다는 어머니의 말씀까지 모두 실
생활에서 얻어진 중요한 교훈이었지요. 좌담회를
가치있게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가정이 되도록
는 찬송과 성경읽기가 끊이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은 잘 자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어린이들을 유아부에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정
감 감사하며 아쉬운 시간을 마쳤답니다.

(임미순 통신원)

에바다부

일본 단기농아인선교 담사

일본 단기선교 준비를 위한 담사로 이승수목사
님, 박진기목사님, 윤인원목사님, 전은수선생님 등
4명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344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지방의 농아인교회를 방문
하고 이번 일본 단기선교의 일정을 점검하고 들
어오는 시간이었다. 일본 오사카지방은 세계각국
에 인태화가 열릴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일본에는 약31만 7천명의 농아인이 있
고, 그중 1.1%만이 개신교 성도라 한다. 그리고 단
기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오사카지방에는 약100여
명의 농아인이 있다. 에바다부는 8월1일부터 11일
까지 일본 단기농아인선교를 준비중이고, 단기선
교팀으로 일반인 5명, 농아인교도 2명으로 구성해 갈
예정이다. 에바다부에서 처음으로 가는 단기선교
이기에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할다.

(오미인 통신원)

청년2부

서울역 총동원전도



청년2부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
분 서울역 단담의
광장에서 총동원
전도를 실시한다.
이번 총동원 전도
에는 청년 2부 교
사 및 전 회원들이 참여, 찬양과 말씀으로 서울역
주변의 노숙자와 여행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청
년 2부의 총동원 전도는 1년에 4번, 정기별로 진행
되고 있다. 총동원 전도는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며, 신앙의 열심을 되살리는 계기로 되고 있다.
청년 2부는 전도에 힘쓰는 부서가 되자 매주 목
요일 오후 7시30분 서울역 단담의 광장 찬양전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사울중앙병원 그룹전도환
등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2부 통신원)

한양도심

- ▶4교구 김경익 집사(능동구역) 폐가 안찰로서 김도
준에게 있습니다. 집사가 잘 나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4교구 이길남 집사(영등포구역) 한도으로 편찮으십
니다. 참을 잘 주무시고 불행하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 ▶4교구 정홍식 장로(한양구역) 방사신 치료 중에 있
습니다. 빠른 완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매들

춘분을 맞으며

노영한 (집사, 소년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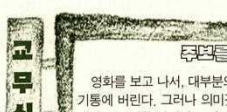
대동강 얼음도 풀리기 시작한다는 우수 경절도 지나고 20일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봄의 시작인 춘분이다. 이상화 시인은 배앗진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며 식민지 시대의 울분을 표현하였지만 마당에 핀 매화를 찍는다고 봄을 막을 수는 없다.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데 겨울이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나무들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다. 가을에 나무뿌리를 냉각고에 넣었다가 꺼내 놓으면 냉각고에서 겨울을 보낸 나무가 봄이 온 줄 알고 꽃을 피운다. 가끔 가을에 추위가 일찍 온 후에 다시 따뜻한 가을 날씨가 되면 나무들이 봄이 온 줄을 착각하고 꽃을 피워 화제가 되는데 이런 현상을 춘화현상(Vernalization)이라고 한다. 인생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업체도 겨울인 시련이 오게 되는데, 이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 주시는 은혜야말로 더욱 값지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봄이 온다고 무조건 색깔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땅속에 씨앗(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나올 수 없다. 복음의 씨앗이 없으면 가리지만 무성할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망하여 배를 타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근면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자(신8:14-17).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보다는 하나님이 내편에 서주기를 기도하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전과 악을 스스로 정하고 사랑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온 것을 두려워하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계속될지 현실에서 십자가의 길이라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춘분이 와도 색깔을 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잊기만하자.

탕방

브니엘 중창단

주일 밤 7시의 교회당은 어떤 모습일까? 온종일 교회
를 가득 메웠던 성도들이 침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밝
히던 불은 꺼지고 교회는 어둠속에 몸을 숨기고 침묵
과 고독의 시간으로 접어든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주일밤, 교회에 아직도 침으로 가지 않
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
이란 뜻을 가진 '브니엘 중창단원'들이다. 이들은 매주
일 밤이 늦도록 교회에 남아 더 나은 찬양을 위해 연습
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다. 군전도회에 소속된 브니엘
중창단은 모두 13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내적
으로 이들은 주로 군전도회의 월례회와 금요찬양과 예
배15분 전 찬양시간에 활동한다. 대외적으로는 군 진중
세례식에서 참여하고 한양대 병원전도와 충주의 미자
령교회 등을 돕는 찬양활동을 한다. 그외에도 비정기적

으로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달려가 찬양을
드린다. 브니엘 중창단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
다 사랑과 사랑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구동
성으로 자신들이 사랑가운데 있으며 이만한 사랑이 넘
치는 모습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한다. 구성원은 20대
부터 50대에 이르는 연령의 분포이지만 연행을 조절하
여 모두가 한 몸처럼 살아간다고 한다. 여러 목사님이
모여서 내는 한 목사님이 사랑을 감동시키는 중창의
원리가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겠나보다. 이들의 연습
전 기도 또한 유명하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게 은혜를 끼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브니엘 찬양대의 앞으로의 계획은 미자령회
회에서 가서 찬양의 밤을 개최하여 그들을 돕는 일과
병원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들이 영으로
드리는 찬양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나라를 왕장
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정연희 기자)

한양도심
(紙上敎會學校)

영화를 보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필름컷을 쓰러
기통에 버린다. 그러나 의미있는 전시회나 출판된 관람하기
할거나 무대를 관전하고 난 후에는 손서지나 필름컷 등을 소
중하게 간직하게 된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지거
를 원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주일학교에서는
주보를 일년간 보관박박 모은 학생을 격려하고 상품까지 주
여왔다. 성인 교우들 중에도 주보를 성실하게 모아 교회기
여장에 반전되어 왔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돈해온
분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
졌다. 주일마다 예배실 구석 구석에 구겨진 주보, 발에 밟혀
버려진 주보들이 즐비하다. 심지어 주일학교 예배실에
는 주보를 접혀진 주보, 만물기 재료를 쓰다가 벗겨진 주보
들이 자주 눈에 띈다. 쓰레기통에도 주보가 그득하다. 어느
순간 시대에 주보를 모으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주보를 모으는 일에 별다른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주보모으기'는 신앙역사 노모다. 예배의
순서를 주보별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동안 마음모르게 축적되는
신앙의 힘이 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념해줄 수 있
는 주보를 쉽게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의 의미를 너무 거
볍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장부에서

는 오늘 12시 30분 교육관 314
호에서 박경환목사님을 강사로 '장
년2부 초창 전도집회'를 갖는다고 한
다. '50대 초창의 성도들은 장년2부 할
삼 교제의 자리로 와보라'는 표어로 초
창 전도집회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재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운동장

고부에서
지난 2월 27일~3월 1일까지 낙
도어린이 초창 수련회를 하였다. 통영
남교회와 미남교회에서 헌신 목사님 2분
을 비롯하여 23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였
다. 본당 새벽예배에 참석부터 시작한 수련
회는 말씀읽기, 찬양과 율동의 시간들, 하
나님께 드리는 기도, 라는 제목의 글짓기 시
간, 전도특강, 레크레이션 등 잘 짜여진 일
정에 맞추어서 성경학습회를 하였다. 고등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어
름 낙도사역의 헌신성으로 예수님을 알
아가는 그들에게 더욱 확고하게 하
나의 사랑을 심어준 3박 4일이
였다고 한다.

